자체 감리업무 가능한데 특정업체와 용역계약 40억원 날려

전남도 감사로 드러난 전남개발공사 요지경 운영 실태

5280억 오룡 택지개발 이사회 의결도 없이 추진
임대료·관리비 수억 들인 천일염처리장 가공설비 "인력 없다" 수년간 방치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그동안 개발·경영사업을 벌이면서 예산 낭비 및 업체 밀어주기, 업무 태만, 운영 부실, 지도·감독 소홀 등의 잘못을 저질러온 사실이 전남도의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특히 민선 5기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사회 의결, 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40억원이 넘는 불필요한 용역이 발주됐다며 전남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팀장, 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업체와 유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유착 의혹 등=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5280억원이 투입되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공사 발주 두 달 후 공사채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올해 2월28일 뒤늦게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오룡지구 공사비가 13억9400만원만 편성되고, 책임감리 용역비는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았는데도 1단계 공사(522억원)와 45억원의 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직 잉여인력 발생으로 자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특정 업체와 전면 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 40억115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까지 했다.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하더라도 통합 발주를 해야 한다"는 전남도 회계과의 지적은 무시됐으며, 업체 선정 과정은 불투명했다. 전남도가 이에 대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의뢰하면서 비리나 유착이 있었는지, 고위 임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전망이다.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 270만2000㎡에 조성중인 오룡지구는 지난 2002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1단계 2017년까지, 2단계 2016~2019년, 3단계 2017~2021년 등 모두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토지 매입은 모두 끝난 상태로, 지난해 말 1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사업비 333억원의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지하시설물 GIS DB(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특정업체와 3억원 가량에 수의계약해 특혜를 줬고, 140억945만원이 투입된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억3377만원을 과다계상했다. 경도골프장 드라이빙 레인지 조성공사,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건립공사,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등에서도 과다계상 문제가 지적됐다.

◇천일염, 관광사업 등은 운영 부실=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매달 800만원의 임대료와 9367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는 '천일염산지처리장'은 고작 18% 수준만 사용하고, 처리장 내부에 4억2200만원을 투자해 구축한 연간 생산능력 2900t의 가공설비는 인력고용 문제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3년 11개 업체에 소금 64만6000가마를 특가판매하면서 공사가 정한 가격 2억4700만원보다 낮은 2억100만원에 팔아 영업 손실을 초래하고 6년간 13억5900만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운영은 부실했다.

지난 4월2일부터 9월27일까지 전남관광(주)은 골프장 주변 조경수 식재사업 등을 개발공사 승인 없이 7건으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하면서 15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에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등 총 104만4527㎡(분양가 1717억68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겠다는 공고를 한 후 2일 뒤에는 한 업체와 용적률 상향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회계 업무에서도 지자체 지원 사업비 기부금 및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사업 매출액 등의 회계처리 부적정, 기부금 세무조정 누락,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 공사채 운영 부적정,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미이행 등도 지적을 받았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전남개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지난 10월 감사에 나섰으며, 감사와 별도로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도 받고 있다. 현재 사장은 공석으로, 신임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치구 ·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

특별시
▲구청장 직선제 유지 ▲구 · 군 단위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 · 군 단위 기초의회 폐지 ▲1안 – 시장이 인사청문회 거쳐 구청장과 군수 임명 2안 –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

▲특별시 산하 구청장과 광역시 산하 구청장 및 군수 독자적 과세권 부여하지 않음, 기존의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안 확정하겠다는 방침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 예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2018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전제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재 · 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등 제안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제고
▲조례 제정범위 등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등 인사독립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에 지자체 출자 · 출연 또는 사무위탁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 제시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춤
▲행정기관 위법사항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조례의 제 ·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
▲주민서명자 수 현행보다 완화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시 · 군 · 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 설치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수행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연합뉴스 자료/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 직선제 개선…출마자격도 대폭 강화

지방자치발전 개편안 내용

지방의회 입법·인사권 확대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낮춰
20개 과제 2017년까지 확정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종합개편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기능 개편=지발위는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 광역시의 경우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시 산하 구청장과 광역시 산하 구청장 및 군수에 대해선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선거 개선=지발위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차원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 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제고=지발위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 등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등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또는 사무위탁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지발위는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군·구에 자치경찰단을 조직, 방범·질서유지·학교폭력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사무 23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6년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지발위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우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 확보 강화와 병행 추진한다는 것. 정치권에선 간선제·임명제·러닝메이트 제도 등의 대안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교육 관련 경력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정당가입 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기타=이 외에 지발위는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이와 함께 ▲시도에 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자부장관,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재부 장관,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지방협의체 설치 ▲통합대상 지자체 추가 발굴 및 통합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특례지원 기한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 09:00~20:00(연중무휴)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가람여행사 수완점 [수완동 195 우리밀베이커리 2층]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C타워 1층] 062)431-0102

AAPF01-OX1
캐주얼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014,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준특급 호텔 투숙
특전 : 게절과일 + 음료 1병 제공
특식 : 호텔 씨푸드, 로얄 드래곤

AAPF01-OX2
클래식 [3.6.9 프로모션]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314,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초특급 호텔 투숙
특전 : 파타야 대표소 관람
특식 : 호텔 씨푸드, 한아랑 스페셜 특식, 로얄 드래곤, 그랜드 펄 선상런치 크루즈

AAPF01-OXA
클래식 [多드림]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64,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호텔: 초특급 호텔 투숙
특전 : 전통안마 2시간/ 발마사지 1시간
특식 : 고기뷔페, 한아랑 스페셜 특식, 바이욕 스카이 디너 뷔페

AAGF01-OX1
하나골프 [36홀+관광]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53,9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준특급 호텔 투숙
특전 : 티파니쇼, 전신마사지 2시간
특식 : 일식뷔페, 한아랑 쌀밥

HHW200-OZC/KEE
오아후 6일
쉐라톤 와이키키
총 상품가격 2,679,1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 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토/일/월요일
특전 : 쉐라톤 와이키키 파셜오션뷰→오션프론트 업그레이드, 와이키키 시내 위치한 코스 디너 1회 포함, 오아후 맛집 투어 포함

AXW101-A
몰디브 6/7/8일
반얀트리 바빈파루 리조트
총 상품가격 3,901,200원~
현지지불 ▶몰디브 공항 택스(1인 $25)
리조트 내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토/일/월요일
특전 : 전식 포함, 30분 파트너 마사지 레슨, 열대과일과 와인1병

AAW199-TG1
코사무이 6일
칸다부리(1)+뉴실라비디 파노라믹 풀빌라(3)
총 상품가격 1,802,6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일/월요일
특전 : 스파클링 와인1병&케익, 리조트 내 디너 1회 제공, 리조트 내 아로마테라피 60분 제공

PSW418-O/H
사이판 4/5일
마리아나 리조트 & 스파
총 상품가격 831,1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 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토/일/월요일
특전 : Wi-Fi 변환기 대여(커클링 1대), 민디 아시안 스파 1회 무료 제공, [하나투어 단독]허머리무진 사이판 북섬 투어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투어 호주/뉴질랜드 여행
① 매주 금요일 100% 출발 ② 8명 이상부터 인솔자 동행 (단, 클래식 상품 한정)
③ 대한항공 최다 블럭 확보 ④ 국내 유일 호주 & 뉴질랜드 하나투어 지사운영
⑤ 사전 예약 최대20만원 할인 제공 (단, 클래식 상품 한정)

PAP420-OZ
클래식 [사전예약할인]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총 상품가격 3,353,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80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매주 수요일, 일요일
호텔: 4성급 이상
일정: 오클랜드- 로토루아-오클랜드-시드니
특전: 포스트테판 관광 (돌핀크루즈), 오페라 하우스 내부 관광, 아그로돔 농장 팜투어
특식: 시드니 타워 뷔페식, 스테이크, 돌핀크루즈 선상 뷔페식, 스카이라인 전망대 조식, 황이 디너 등

PAP421-KEP
클래식 [사전예약할인]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총 상품가격 4,253,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100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매주 화, 목, 금, 일요일
호텔: 4성급 이상 호텔 (단, 트위젤 3성급 호텔)
일정: 시드니-크라이스트처치-마운트쿡-퀸스타운-크라이스트처치-로토루아-오클랜드
특전: 시드니 항 하버크루즈 탑승, 테푸이아 지열지대 관광, 수채화 같은 도시 와나카 관광
특식: 스테이크 특식, 황이 디너, 스카이라인 전망대 조식, 초목 홍합탕, 연어회, 선상 뷔페식 등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